

“코로나19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사람 많은 곳 피하라”

전남 방역당국 “증상 있을때 반드시 검사...연말 모임도 자제” 중대본 “2~4주 후 전국서 하루 300~400명씩 발생할 수도”

“지역 곳곳에 숨은 코로나 19 환자가 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몸살·발열·근육통 등 증세가 있으면 감기와 딱지 말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말연시 모임도 자제해야 할 상황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16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는 현 상황을 거론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감기가 생각한 지역민들이 해열제 등 감기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검사 받고 입원해야 하는데 감

기약 드시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추가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거듭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3명, 8일 2명, 9일 2명, 10일 0명으로 통제 범위에서 발생하던 것이 지난 11일부터 8명, 12일 9명, 13일 13명, 14일 8명, 15일 8명, 16일 11명(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재확산 초기 신환은 순천 연향 지점에서 다수의 지역감염자가 나오던 것이 광양제

철소 협력사, 인근 석유화학 대기업, 화순 요양보호사, 광양 귀농부부, 광양농협과 광양고 등 감염 고리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칫 지역민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경우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코로나 19 관련 발표문을 내고 “우려되는 점은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다시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초동단계 대처가 중요하다”

며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검사비용은 무료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2~4주 후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400명씩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겨울철 특성상 밀폐된 실내 공간 활동이 많아지고, 최근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생산지수는 1.12로, 1.1이 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단계예측을 보면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산지수만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정 본부장은 “중환자 병상을 확충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의 발생이 올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전파 패턴이 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위해 시민협의체 앞장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전원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 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아특별 개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달 6일 ‘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별 개정안이 올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변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 국회의원, 5·18단체, 문화분야 단체대표 등이 1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협약식에 참석,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가 상실되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는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

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시민협의체가 협력해 조성 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하루빨리 문화전당이 제 기

시·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협약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등 노력

전남도 ‘도민고충처리위’ 출범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기대

도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전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첫발을 뒀다.

전남도는 16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식과 위원장 선출에 이어 곧바로 2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주심위원 및 조사관의 검토보고, 안건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됐다.

전남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확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 참여위원은 학계인사 3명을 비롯 변호사 등 법조계 2명, 시민단체, 건축사, 전남도 전·현직 공무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운영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강효석 전남도 감사관은 “고충처리위원회 발족에 따라 앞으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CC 아시아문화광장서 27~28일 자동차 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이 27~28일 자동차 극장으로 깜짝 변신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은 이들 동안 아시아문화광장에서 ‘드라이브 인 ACC’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드라이브 인 ACC’는 자동차 극장 형태로 운영된다. 관람객이 자동차를 운전해 아시아문화광장으로 들어와 차 안에서 대형스크린 속 뮤지컬 공연실황 영상을 관람하게 된다.

28일엔 ‘오페라의 유령’, 29일엔 ‘노트르담 드 파리’를 오후 7시 30분 각각 상영한다. 승용차 30대·SUV 18대 등 모두 50대 이하로만 운영한다. 차량

1대당 최대 탑승 인원은 3명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다.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입장권은 무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태영 전당장 직무대리는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세계 최정수 뮤지컬 배우들이 선사하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동차 극장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혁신공항 착공은 언제?

▶1면에서 계속

두 지역 모두 같은 시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시공사 선정 등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주민반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울릉도의 경우 막힘없이 공항 건설이 추진됐지만, 흑산도의 경우 다도해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반대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구역인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전남도와 신안군은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공원계획 변경) 과정에서 흑산공항 예정부지(120만㎡)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전 가치가 높은 신안지역 갯벌(530만㎡)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정수 신안군 혁신공항 지원단장은 “애초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11년 동시 추진됐으나 울릉도는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힘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공전 중”이라며 “전남도와 신안군이 보전가치가 날로 커지는 갯벌을 대체부지로 제시한 만큼, 국립공원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로자·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립 관광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번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번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힐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11월 16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385,000,000원 중 금 105,000,000원을 감소하여 금28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0,500주를 회사와 주주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 후 임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38,500주를 28,000주(으로) 감소 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본 회사에 제출 할 것 및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 할 것을 이에 공고 및 최고함.

2020년 11월 17일
드림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흥교로 120 대표이사 박 영 희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1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400,010,000원 중 금 3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50,01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40,001주 중 35,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5,001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또한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롯데랜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6, 1층(중흥동) 대표이사 정 석 인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0년 11월 12일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1년 01월 17일까지)에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동탑하우주 주식회사
광주 서구 금호문천길102, 3층 (상촌동, 케이플타워) 청산인 박 민 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기세택(50410-X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송도로294번길 20-2 (송정동)

피상속인 망 기세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1271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17일

- 상속인: 기행중(610828-XXXXXXX) 광주 서구 칠성로35번길 6-9, 101호 (유촌동, 중도다이아빌)

• 신고기간: 2020. 11. 17. ~ 2021. 1. 26.
• 채권신고처: 상속인 기행중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최광해(441005-XXXXXXX)
- 최후주소: 나주시 금성관길 21-13 (금계동)

피상속인 망 최광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1397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17일

- 상속인: 1. 최현배(700323-XXXXXXX) 광주 광산구 칠당로181번길 88-22 104동 601호(월계동, 칠당산동아아파트)
- 2. 최정아(720313-XXXXXXX) 나주시 나주천길 58, 206호 (금계동, 수강아파트)
- 3. 최창수(740727-XXXXXXX) 목포시 용재지구로88번길 23, 502동 503호 (송학동, 골드다움5차아파트)

• 신고기간: 2020. 11. 17 ~ 2021. 1. 26.
• 채권신고처: 상속인 1. 최현배의 주소

정 정 공 고

본보 2020년 10월 19일에 게재한 “갑”(양도인) 주식회사 수명기전 과 “을”(양수인) 주식회사 케이원정기 의 분할합병공고 중 “갑”의 대표이사 손 승 을 대표이사 손 승 으로 정정공고함

2020년 11월 17일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산행안내

11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21일(토) 거창 의상봉·우두산·비계산 Y차 출몰다

리,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시차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앞 08:00 ※ 다음카 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호협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원주),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몰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호협회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